



서길원 大記者 독자와 함께 詩 읽기

‘플라시보’ 효과

제법 오래전에 아는 이랑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그의 아내도 함께했는데, 저보다 그가 먼저 취했다. 평소 짐작던 사람이 취해 함부로 말을 하니 그의 아내는 안절부절 못했고, 들던 저도 솔직히 민망했다. 그가 한 말 가운데는 요즘 기자들은 패기가 없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기자가 아닌 월급쟁이로 전락했다는 등 수긍할 수 있는 말을 했다. 허나 술잔이 더해지자 결국 사이비란 말까지 튀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는 필름이 끊겨 어제 주고 받은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아내가 꼭 제게 사과하라고 해

서 전화했다는... 저도 술이취해 무슨 말을 들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술이 취해 그 때까지 그가 꽤 심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술이 깨다 보니 그가 한 말이 다른 기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마 시인과 저뿐 아니라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게다. 나를 겨냥하여 한 말이 아니건만 내 가슴이 찢려 부끄러웠던 적이. ▶떨아이 피부약을 내 갑기약인 줄 알고 먹고서 / 갑기가 나온 적도 있다 / 대신 매 맞고 뉘우친 마음의 자리 푸른 매 자국이 상심하다

‘위약 효과(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게다. 배탈이 났는데, 영양제를 주면서 약이 배탈에 참 잘 듣는데 하면서 건넌면 환자가 그 말을 믿고 먹으면 몸이 나아지는 효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대신 맞은 인생의 매가, 조금 불쾌할 순 있지만 공연히 자신을 돌아보며 가다듬는 계기도 된다. 이런 매라면 얼마든지 맞아야겠다. 조선시대 ‘매품팔이’는 생계를 위해 남을 대신해 매를 맞았던 오줌 매품팔이는 돈 대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매는 맞을수록 내 자신을 바꾸게 하기에 매 맞는 일도 때론 상심한다. ▶복효근 시인(1962년생) :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1년 ‘시와시학’을 통해 등단. 이 시인의 시에는 언제나 정겨움이 넘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신 매를 맞고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은 목에 너무 힘을 준다든 거 알아요? 시인이라 이겨지죠? 시인이라 이겨지죠? 마음이 한 움큼 뜯겨 나가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루가 지나고 또 e-메일이 왔다. “어젯밤 술에 취해 방배동에서 모 시인과 다뤘는데 돌아와 그 시인에게 e-메일을 보낸다는 게 잘못 배달된 것 같네요. 죄송해서 어찌지요? 평소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나도 답 메일을 이미 보낸 뒤였다. 떨아이 피부약을 내 갑기약인 줄 알고 먹고서 갑기가 나온 적도 있다. 대신 매 맞고 뉘우친 마음의 자리 푸른 매 자국이 상심하다 <2005년>

복효근 작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 경찰의 작은 노력



김광운 /강진경찰서 치량파출소장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진군 치량면의 경우 전형적인 미백 위주의 농촌지역으로 인구 2502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1명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진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가장 안전한 강진 만들기’ 일환으로 전남 최초로 ‘우리마을 안전경찰관’을 치량파출소에서 시범 운영중이고, 추후 확대 예정이다. 우리 경찰은 6명의 경찰관이 33개 마을을 담당하고 있고, 마을별로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주민들은 담당 경찰관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진 및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코팅지를 아르키볼 포켓에 담아 마을회관 출입문에 부착했다. 또한 휴대전화 QR코드를 촬영하면 강진경찰서 홈페이지 ‘마을안전 경찰관에게 바란다’로 연계되어 경찰관 접촉없이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마을 안전경찰관은 담당마을을 도보순찰을 통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주거지역, 공·폐가 등을 정밀 순찰하고, 불안감 요인, 위험요소 등 치안에 대한 주민의견도 청취하며, 마을방범 CCTV 고장 유무도 점검하고 있다. 제도 시행 한달 남짓 시점에서

대표적인 활약상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야간에 학교로 운동 다니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재지에 있는 CCTV 위치 적절성을 재평가 후 주민 대표, 군청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학교 정문쪽으로 이설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또한 이웃이 이사 가서 무섭다는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 고충을 길거리에서 접하고, 즉시 범죄취약 개소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변에 주차된 오토바이·농기계에 반사지를 부착하여 교통사고도 예방했다.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경찰의 노력에 주민들도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발생건수도 작년 대비 200% 감소하였고,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진경찰은 사소한 민원도 꼼꼼히 정성을 다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며, 협력치안을 통해 가장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자투고

장마철 전기안전사고 예방하자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기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매년 장마철에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처럼 장마철 감전 사고가 잦은 이유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로 인한 누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천둥 번개에 의한 전선 단락사고는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되는 일기기에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침수지역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집에 있는 누전차단기가 동작 했을 때는 임의로 작동하지 말고 누전원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길가에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고, 119에 신고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아야 한다. 셋째 집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개

폐기를 내리고 한전 및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후 전기용품 사용해야 한다. 넷째 침수로 손상된 전선은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 전기업체에 의뢰하여 교체 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길가에 넘어진 전주·가로

등 등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119 및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 사고는 예방요령은 참 쉽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워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꼭 기억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원균(여수수원서 여서119안전센터)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만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lumns for local (지국안내) and national (지사안내) contact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editorial.